

SDI 정책리포트

서울시 사업체 창업의 행태 변화 (1997~2008)

2011. 7. 11 제93호

김목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서울시 창업의 주요 현황과 추세
- II. 서울시 주요 산업의 창업 유형 구분
및 특성 분석
- III. 서울시 창업 정책에의 시사점

요 약

서울에서는 창업과 함께 기존 사업체의 성장이 부각되는 새로운 고용성장 패턴이 부상

서울은 매년 전체 사업체의 10% 이상을 창업 사업체로 유지하며 창업한 지 5년 이하인 젊은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절반을 넘는 창업의 도시이다. 하지만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사업체 수는 감소하는 반면 종사자 수는 늘어나는 새로운 고용성장 추세가 나타났다. 서울시 산업구조의 성숙에 기인한 기존 사업체 규모의 확대 성향이 이러한 추세의 주요 요인이다. 동일 기간 동안 창업 사업체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8년 경제위기라는 경기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있어 향후 추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다 서비스업에서의 창업 비중이 높았다.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이 대표적인 고용 감소 업종이었던 반면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산업활동이 낮았던 지역인 서북권과 동북권의 창업 비중이 최근 높게 나타난 반면, 기존 산업 중심지인 서남권과 동남권에서는 사업체가 오래 지속되는 추세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창업과 지속성장의 행태가 다르게 나타남

창업 특성에 따라 서울시 주요 산업은 성장, 순환, 감소, 정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장유형은 사업체의 창업과 지속성이 모두 서울시 전체 산업에 비해 높아서 성장하는 산업군으로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한다. 순환유형은 창업은 많으나 지속성이 떨어지는 자영업의 특성을 보이는 산업군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감소유형은 사업체의 창업과 지속성이 모두 낮아 감소하는 유형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유형은 창업은 낮지만 지속성이 높은 산업군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성숙기 산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초기 단계 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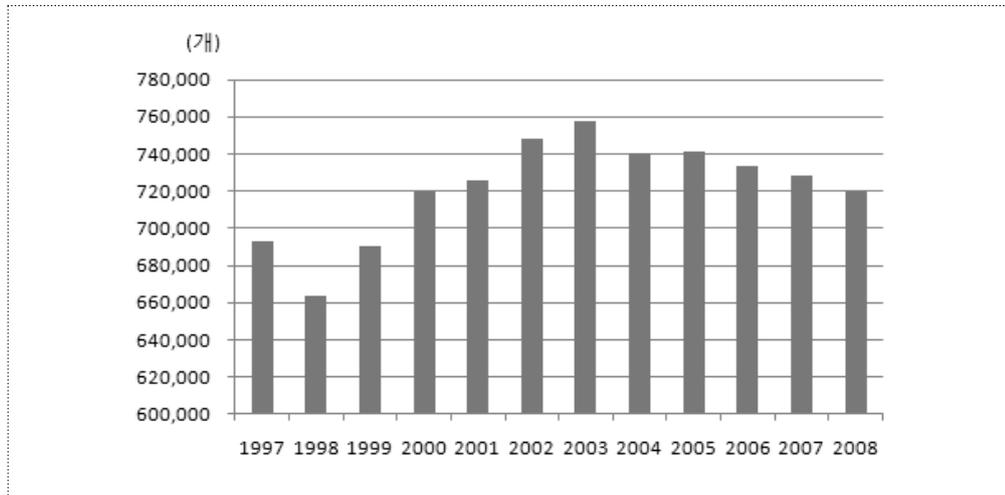
창업 유형별로 창업 촉진과 기존 업체의 성장정책을 선택 혹은 병행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서울시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체의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 이후 사업체의 성장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창업 사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창업 정책을 기존 산업정책 지원 프로그램과 보다 적극적으로 병립하고 연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기존 사업체가 고용성장을 견인하는 현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창업정책에 더불어 기존 사업체의 성장을 유도하는 기업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창업 특성에 따른 산업 유형별로 창업 촉진과 기존 업체의 성장 정책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I. 서울시 창업의 주요 현황과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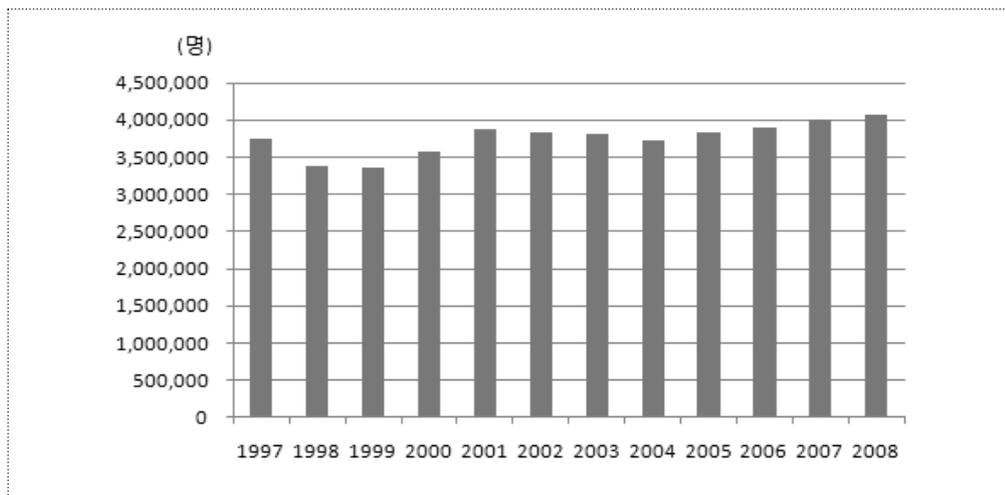
창업보다 기존 사업체의 성장이 고용성장을 견인

- 서울은 매년 사업체 중 10% 이상이 창업 사업체로 유지되는 창업의 도시
 -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의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창업 사업체 수 비중은 연 평균 14.5%
 - 동일 기간 동안 창업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수가 전체 서울시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연 평균은 9.5%
 - 2008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52.8%가 창업 5년 이하인 젊은 사업체
 - 해당 사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 수의 35.9%
- 2004년 이후 서울시 사업체 수는 감소하나 종사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
 - 2004년 이전에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증감 패턴이 유사
 - 1998년을 저점으로 2003년까지 사업체, 종사자 수 모두 상승 추세
 -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사업체 수는 감소하고 종사자 수는 증가하는 기존 사업체의 성장 추세가 부상
 - 서울시 법인사업체 또한 1997년 9.1%에서 2008년 14.8%로 증가하여 사업체 규모 확장 추세 반영
 - 2008년 세계 경제위기라는 중대한 경기변동 요인이 있어 2008년 이후에도 상기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



자료: 통계청, 각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림 1] 서울시 사업체 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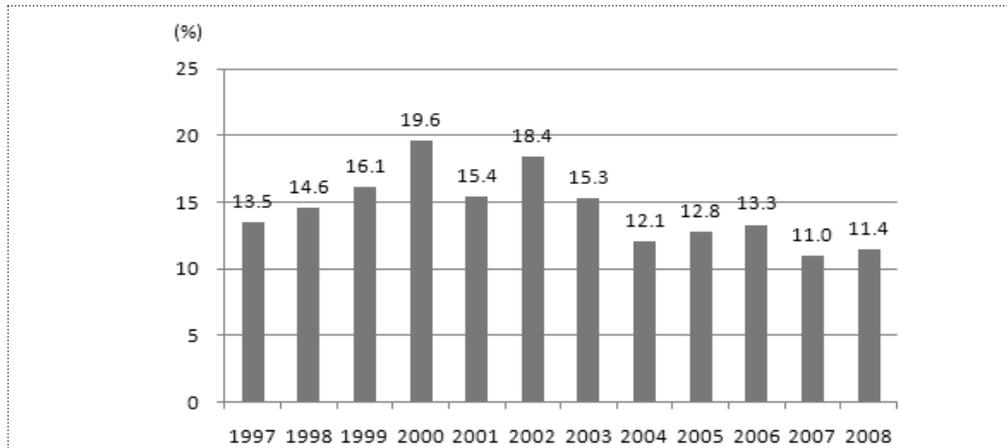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림 2] 서울시 종사자 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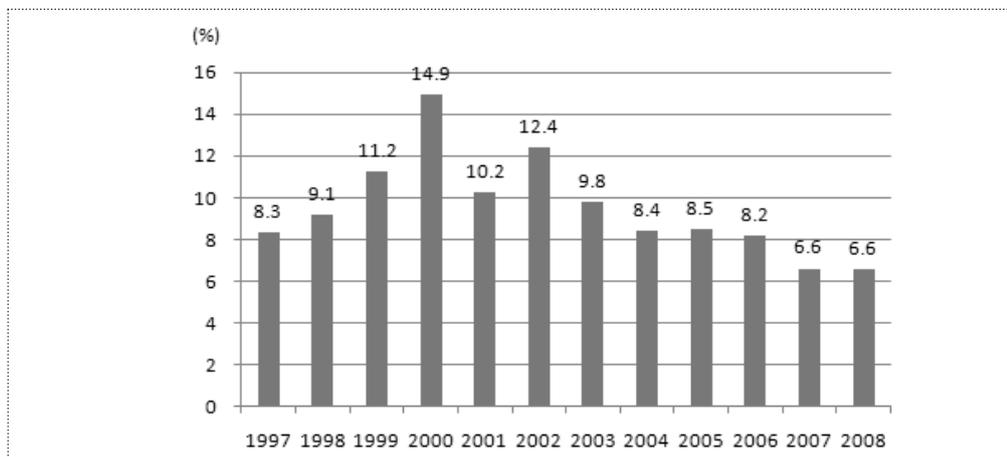
- 사업체 창업은 2000년대 초를 정점으로 2008년까지 하락 추세
 - 서울시의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창업 사업체 수의 비중은 2002년 이후 감소 추세
 - 2000년 19.6%, 2002년 18.4%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1.4%까지 하락

- 서울시의 창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서울시 전체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2년 이후 감소 추세
- 2000년 14.9%, 2002년 12.4%를 기록한 이후 2008년 6.6%까지 감소



자료: 통계청, 각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림 3] 서울시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창업 사업체 수 비중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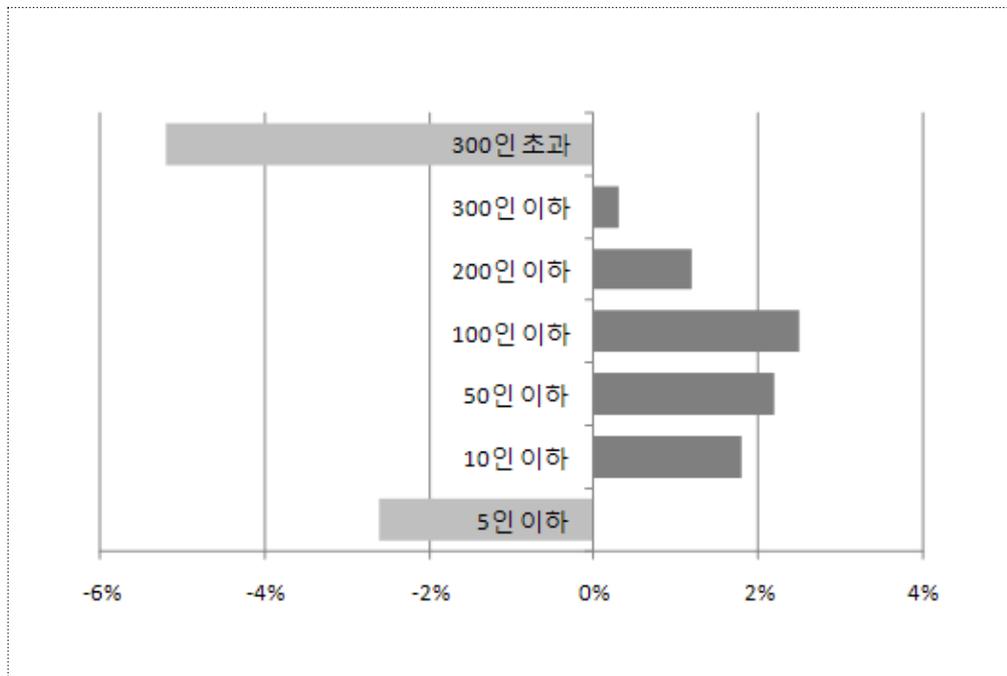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림 4] 서울시 전체 종사자 수 대비 창업 사업체의 종사자 수 비중 추세

-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나타난 단기적인 추세일 수도 있어 2008년 이후 서울시 종사자 수 비중 증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 고용성장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짐

- 5인 이하 영세 사업체와 300인 초과 대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 비중은 감소 추세
 - 1997년에서 2008년까지 창업의 주를 이루는 5인 이하 영세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의 비중은 32.5%에서 29.9%로 감소
 - 300인 초과 대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 비중도 24.5%에서 19.3%로 감소
- 반면 중소기업 사업체 근무 종사자 수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
 - 6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 비중은 43.0%에서 51.1%로 증가



자료: 통계청, 각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림 5] 서울시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비중 변화(1997-2008)

- 서울의 사업체 규모는 전반적으로 영세성에서 벗어나 성장하고 있음
 - 2006년 기준 서울의 평균 사업체 규모는 5.3명으로 일본 동경도의 12.6명의 절반 미만 수준
 - 동경도의 사업체 수는 2006년 약 69만개로 약 73만개였던 서울시보다 적었음
 - 하지만 종사자 수는 동경도가 2006년 약 870만명으로 약 389만명이었던 서울시의 두 배 이상
 - 2008년 기준 서울의 평균 사업체 규모는 5.7명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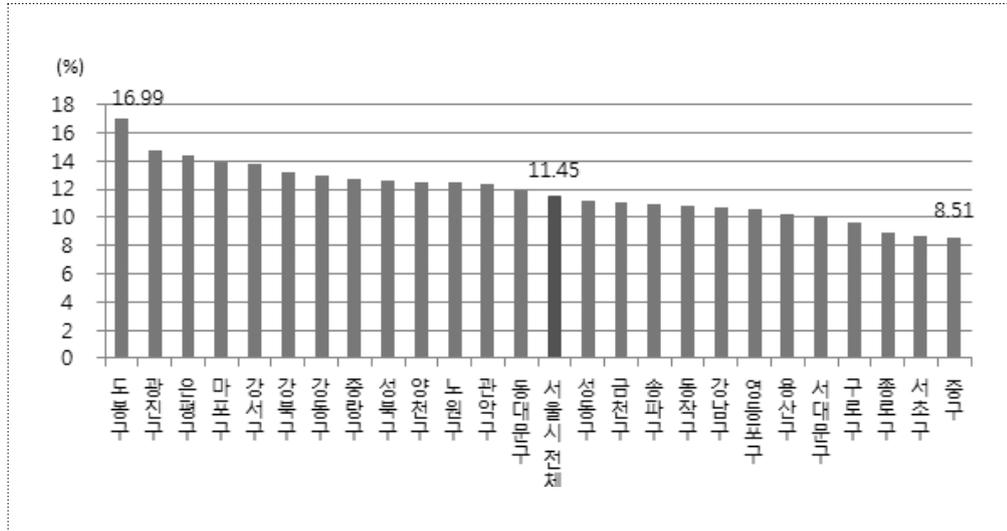
서비스업의 창업이 제조업의 약 2배

- 2008년 기준 서비스업의 창업 사업체 수 비중은 12.0%로 제조업 6.6%의 거의 2배
 - 창업 사업체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18.5%에 달함
 - 숙박 및 음식점업(17.1%), 교육서비스업(15.6%), 부동산업 및 임대업(14.7%) 등이 비중이 높음
 - 반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5.3%), 제조업(6.6%) 등이 비중이 낮음
-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에서의 종사자 비중 감소가 컸던 반면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중은 증가

- 제조업은 1997년에서 2008년까지 종사자 비중이 17.2%에서 절반 이하인 8.2%로 가장 급격한 감소를 보임
 - 이외에 10.3%에서 5.7%로 역시 절반 정도로 감소한 건설업, 22.4%에서 18.8%로 감소한 도매 및 소매업이 대표적인 종사자 감소 업종
-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중이 동일 기간 동안 7.1%에서 두 배가 넘는 19.6%로 가장 급격하게 성장
 - 또한 교육서비스업은 5.0%에서 6.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3.0%에서 5.0%로 비중 증가
 - 이 외에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3.6%에서 4.4%, 숙박 및 음식점업이 8.9%에서 9.7%로 성장 추세

비교적 산업활동이 낮았던 지역의 창업활동이 최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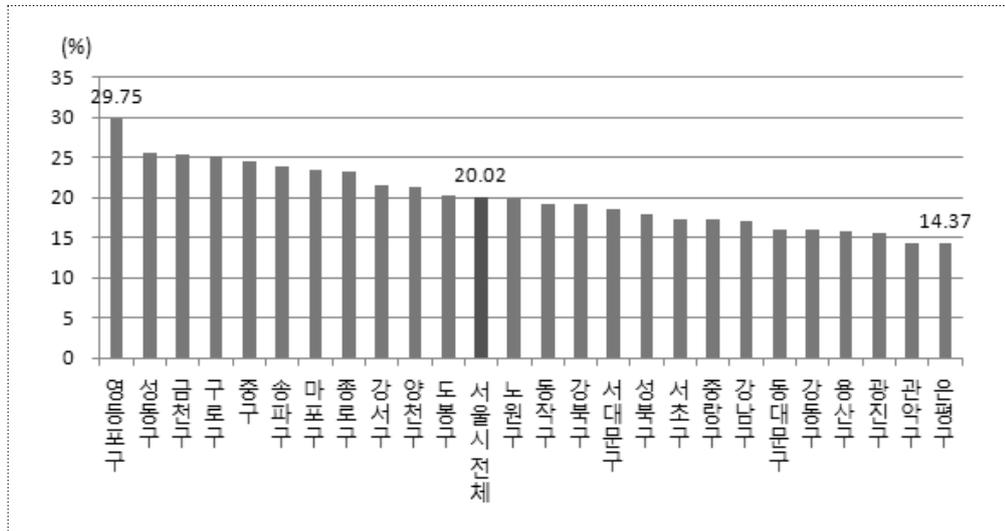
- 서북권과 동북권의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창업 사업체 수 비중이 서남권과 동남권을 상회
 - 2008년 서북권과 동북권의 창업 사업체 비중은 모두 13.1%로 비슷
 - 서남권은 11.5%, 동남권은 10.7%, 반면 도심권은 8.9%로 가장 낮음
 - 25개 자치구별 비교에서도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가 아닌 자치구의 창업 사업체 비중이 높음
 - 도봉구가 17.0%로 최고, 중구가 8.5%로 최저



자료: 통계청, 2008,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림 6] 2008년 자치구별 창업 사업체 수 비중

- 기존 산업이 집적한 자치구는 산업규모가 이미 크기 때문에 창업 사업체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는 어려움
 - 여전히 창업 사업체의 수는 기존 산업 중심지가 더 많음
 -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미진했던 지역에서의 창업 사업체 비중 증가 또한 고무적인 현상
- 서남권과 동남권의 오래 지속된 사업체 비중이 서북권과 동북권을 상회
 - 각 지역별로 1997년에 창업한 사업체 수 대비 1997년에 창업해서 2008년 해당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중을 보면 서남권과 동남권은 각각 22.4%, 22.3%로 비슷
 - 서북권은 18.5%, 도심권은 18.3% 동북권은 18.3%로 거의 동일
 - 25개 자치구별 비교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음
 - 영등포구가 29.8%로 최고, 은평구가 14.4%로 최저



자료: 통계청, 2008, 「사업체기초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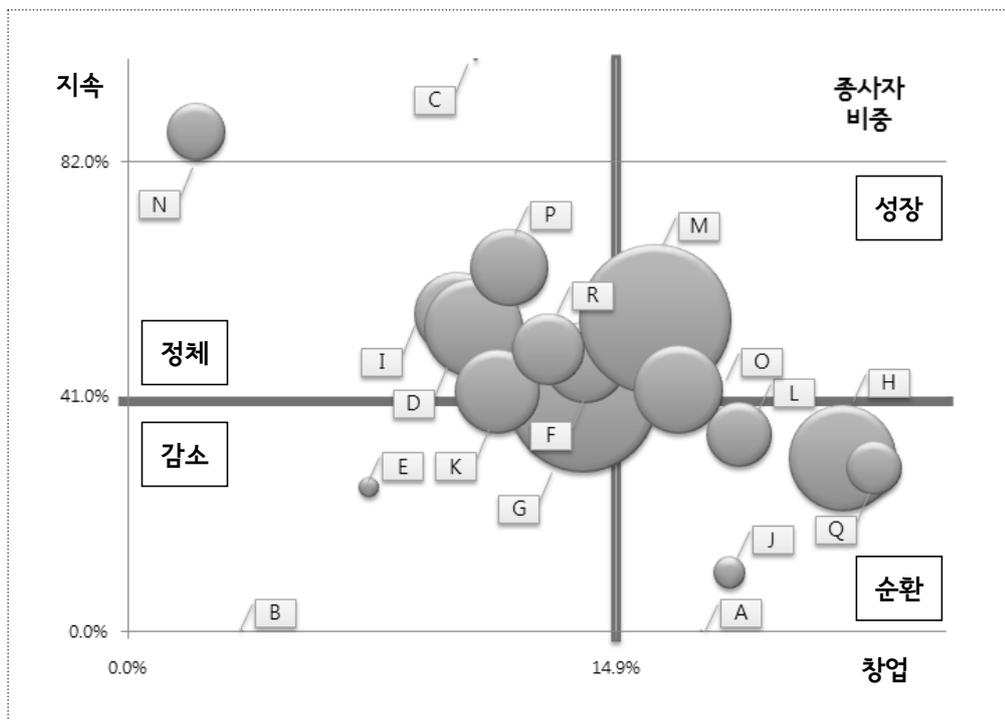
[그림 7] 2008년 자치구별 지속된 사업체 수 비중

- 전반적으로 제조업 등 성숙단계에 들어선 산업이 주로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오래 지속된 사업체 비중이 높음
- 반면 신산업 위주의 자치구들에서는 오래 지속된 사업체 비중은 낮은 편

II. 서울시 주요 산업의 창업 유형 구분 및 특성 분석

서울시 창업의 4가지 유형 : 성장, 순환, 감소, 정체

- 서울시 산업을 평균 창업 사업체 수 비중과 5년 지속 사업체 수 비중을 기준으로 크게 성장, 순환, 감소, 정체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주) • 가로축은 평균 창업 사업체 수 비중으로 2008년까지 10년간 전체 산업의 비중 평균인 14.9%를 비중 고저의 기준으로 삼음
- 세로축은 2008년 기준으로 한 5년 동안의 지속 사업체 수 비중이며 전체 산업의 비중인 41.0%를 마찬가지로 고저의 기준으로 삼음
- 개별 산업이 서울 경제에서 차지하는 종사자 수 비중은 원의 크기로 표시

[그림 8] 서울시 산업별 창업 유형 분류

<표 1> 서울시 산업의 4가지 창업 유형별 구분

유형	기준	대분류 기준 (총 18개 산업)	산업 비중
성장	창업 ↑ 지속 ↑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26% 사업체 비중: 10%
순환	창업 ↑ 지속 ↓	A. 농업 및 임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J. 통신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16% 사업체 비중: 24%
감소	창업 ↓ 지속 ↓	B. 어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비중: 19% 사업체 비중: 29%
정체	창업 ↓ 지속 ↑	C. 광업 D. 제조업* F. 건설업* I. 운수업* K. 금융 및 보험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37% 사업체 비중: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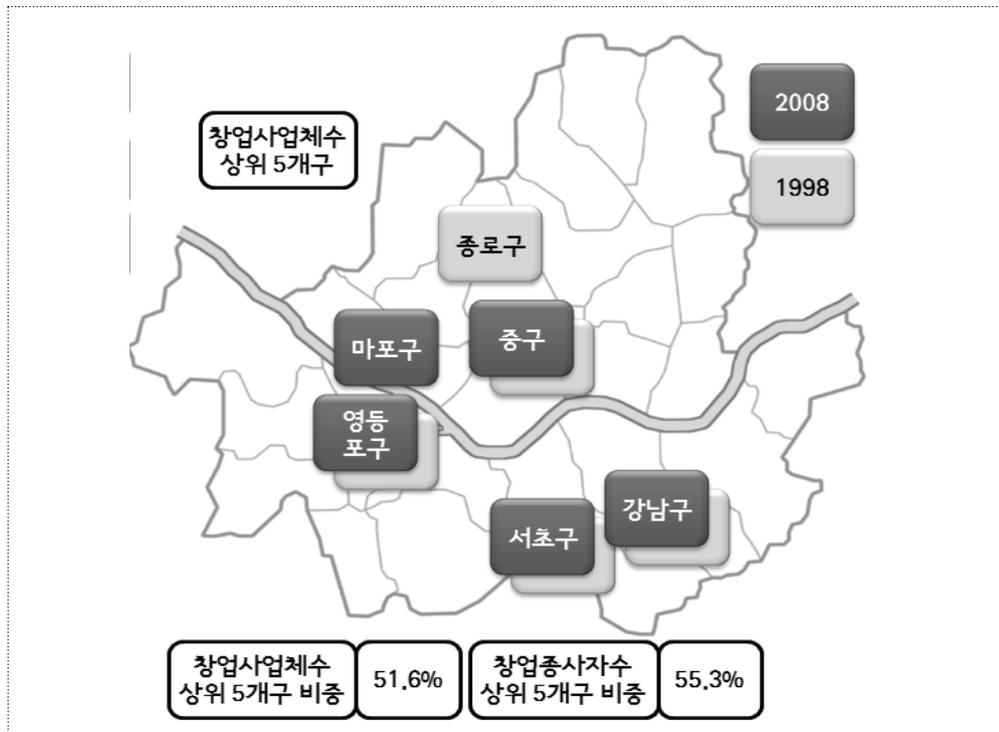
* 종사자 비중 1% 이상

- 성장유형은 창업과 지속 사업체 비중이 모두 전체 산업의 창업과 지속 사업체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는 산업군
 - 주요 산업은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 서울시 전체 대비 종사자 비중이 26%로 사업체 비중 10%보다 높아 다소 노동집약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
- 순환유형은 창업 사업체 수 비중은 높으나 지속 사업체 수 비중이 낮아 산업의 순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산업군

- 주요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리고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 서울시 전체 대비 종사자 비중은 16%, 사업체 비중은 2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
- 감소유형은 창업과 지속 사업체 수 비중이 모두 전체 산업의 비중보다 낮게 나타나 산업 비중이 감소하는 산업군
 - 주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 서울시 전체 대비 종사자 비중은 19%, 사업체 비중은 29%로 순환유형과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비중이 큼
- 정체유형은 창업 사업체 수 비중은 낮으나 지속 사업체 수 비중이 높아 산업의 정체 추세가 관찰되는 산업군
 - 주요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그리고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서울시 전체 대비 종사자 비중은 37%, 사업체 비중은 38%으로 중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체가 공존하는 산업군의 특성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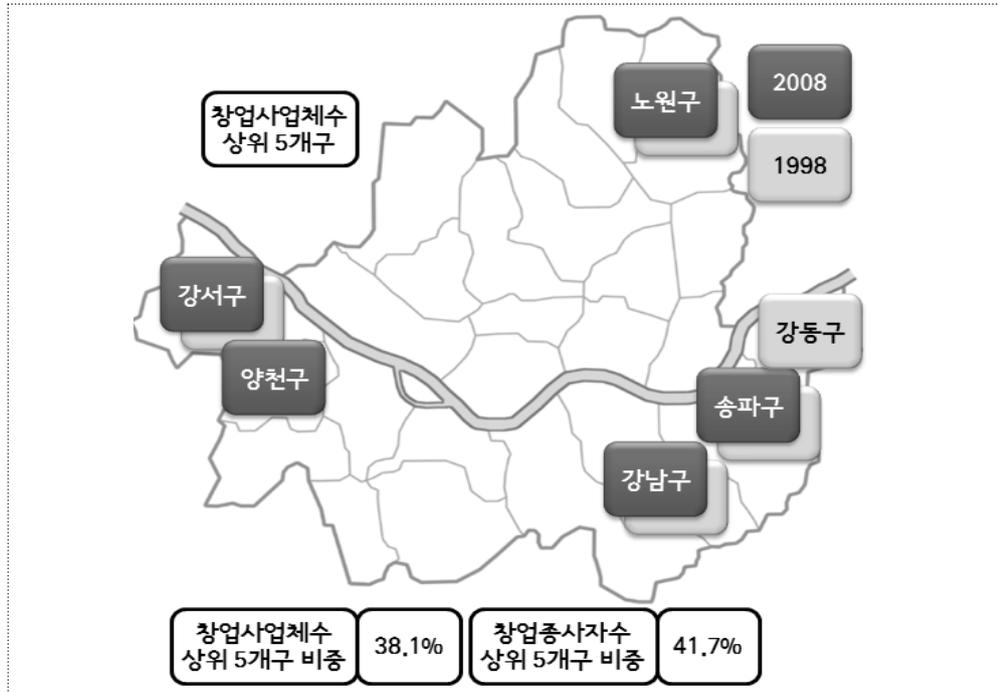
창업 유형별로 주요 산업과 공간적 분포가 다르게 나타남

- 성장유형인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창업이 주로 기존 산업 집적지에서 발생
 - 순환유형을 제외하고는 창업 사업체 비중이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 사업체의 규모 증가 또한 빨라 성장률이 높음
 - 창업 사업체 수 상위 5개 자치구의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아 창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
 - 사업서비스업은 중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에서 주로 창업이 이루어지며 지난 10여 년간 종로구에 이어 마포구가 새로운 창업 중심지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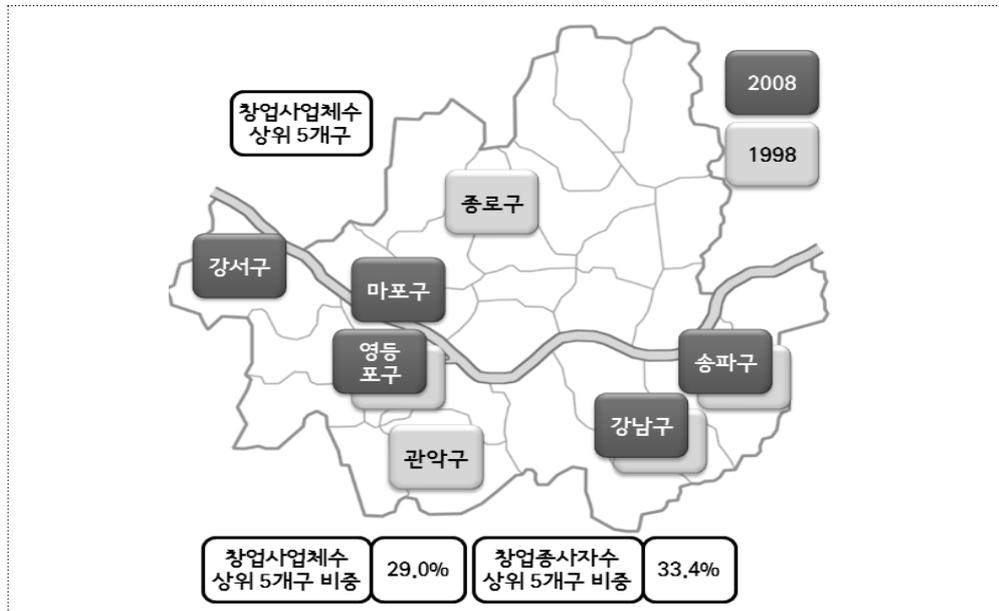
[그림 9] 사업서비스업 창업의 공간적 패턴 변화 추이

- 교육서비스업의 창업은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에서 강세며 지난 10여 년간 강동구에 이어 양천구가 새로운 창업 중심지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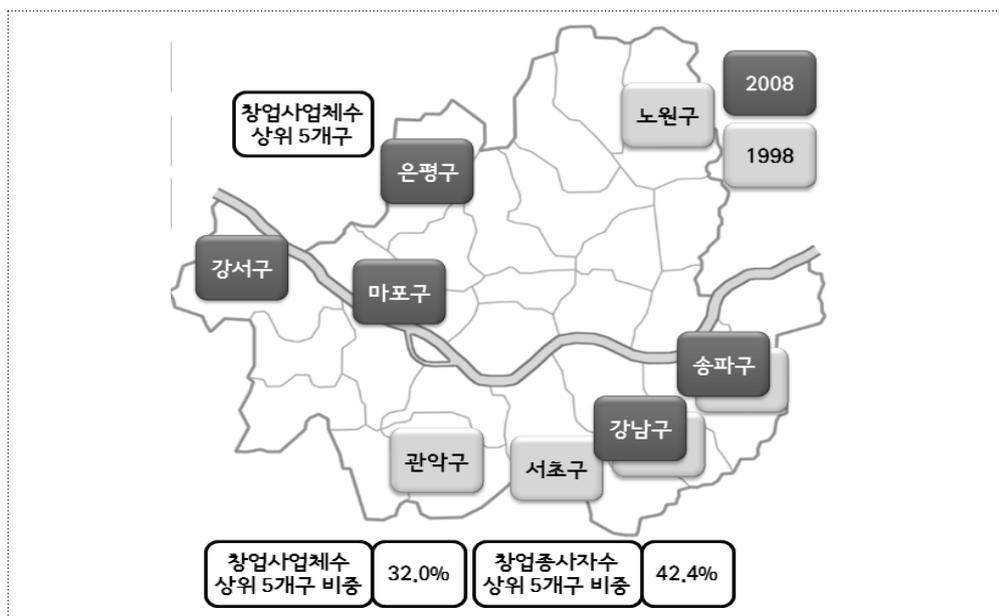
[그림 10] 교육서비스업 창업의 공간적 패턴 변화 추이

- 순환유형인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창폐업이 비교적 빠르고 영세사업체가 많은 자영업의 특성을 보이며 소비자에 근접한 공간적 패턴을 보임
 - 창업률은 4대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지속력이 떨어져 성장률은 답보 수준
 - 상위 5개구 사업체 비중이 30% 내외로 상대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에 고른 분포를 보여 소비자근접형 특성을 반영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에서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종로구, 관악구에 뒤이어 강서구, 마포구에서 창업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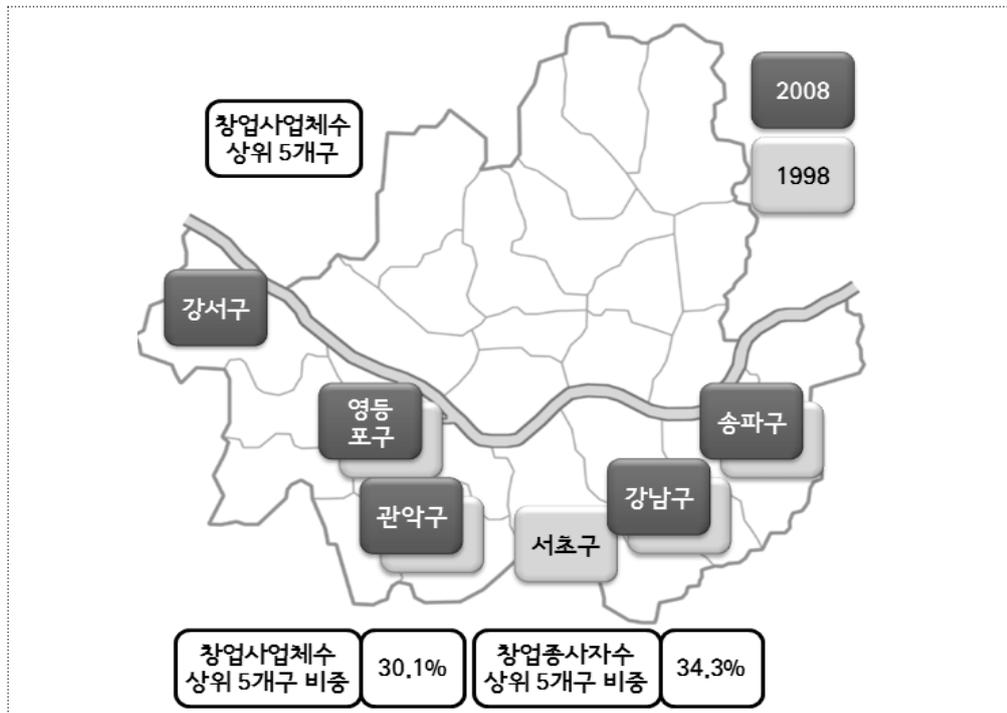
[그림 11] 숙박 및 음식점업 창업의 공간적 패턴 변화 추이

- 부동산 및 임대업의 상위 5개구로는 강남구, 송파구가 창업 중심지의 지위를 유지했고 강서구, 은평구, 마포구가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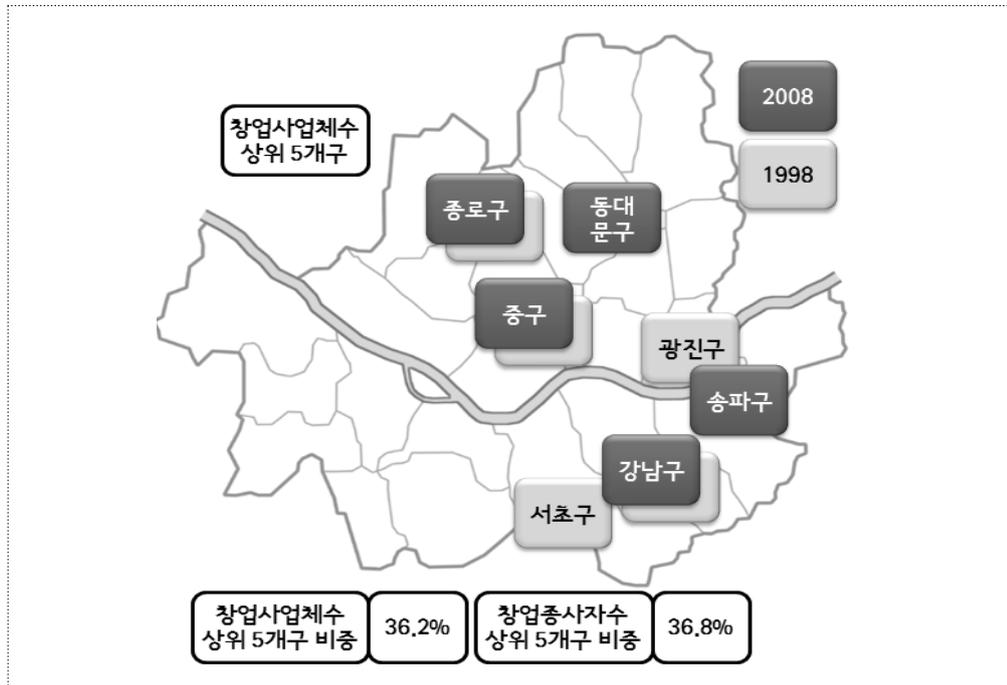
[그림 12] 부동산 및 임대업 창업의 공간적 패턴 변화 추이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은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가 창업이 많이 일어나는 자치구이며, 서초구에 이어 강서구가 새로운 창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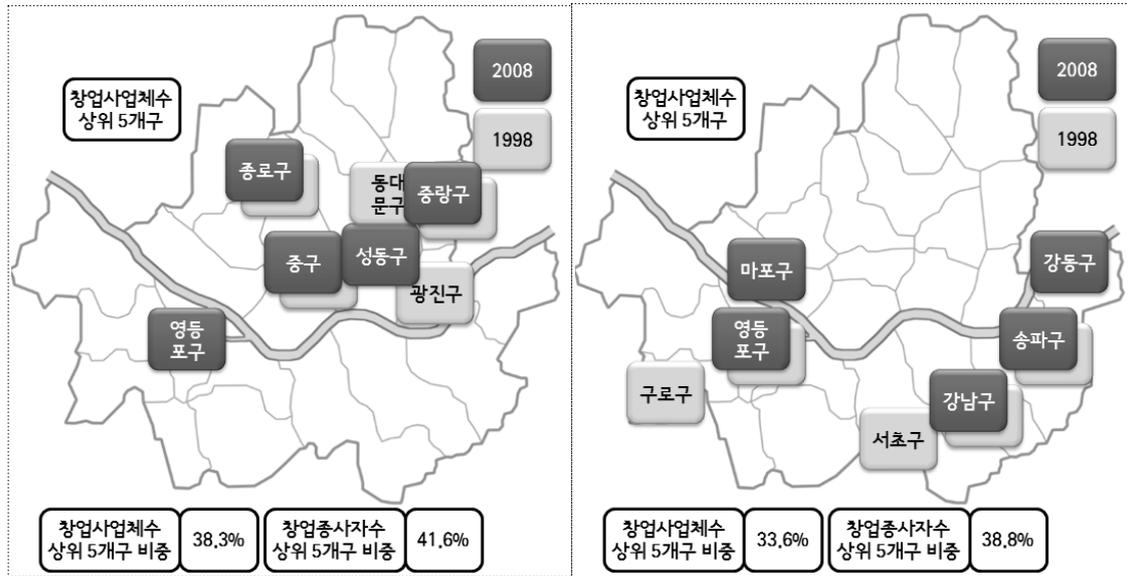
[그림 1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의 공간적 패턴 변화 추이

- 감소유형인 도매 및 소매업이 서울 산업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감소
 - 산업의 집적은 유지되고 있으나 창업은 소매업 중심의 분산형태를 보임
 - 종로구, 중구, 강남구가 전통적인 창업의 중심지이며, 서초구, 광진구를 제치고 동대문구, 송파구에서의 창업이 최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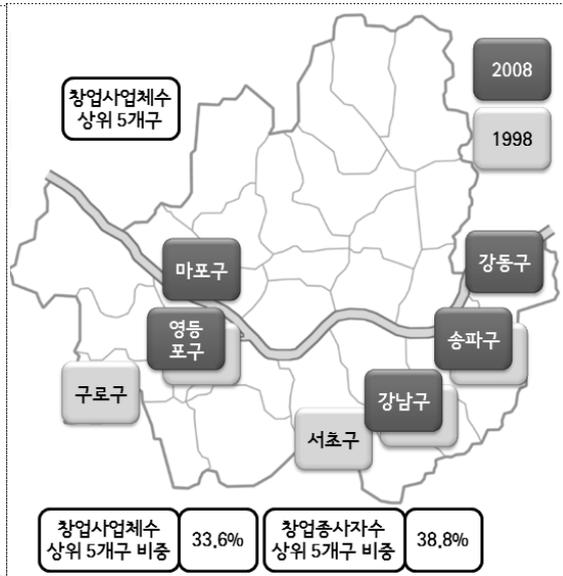


[그림 14] 도매 및 소매업 창업의 공간적 패턴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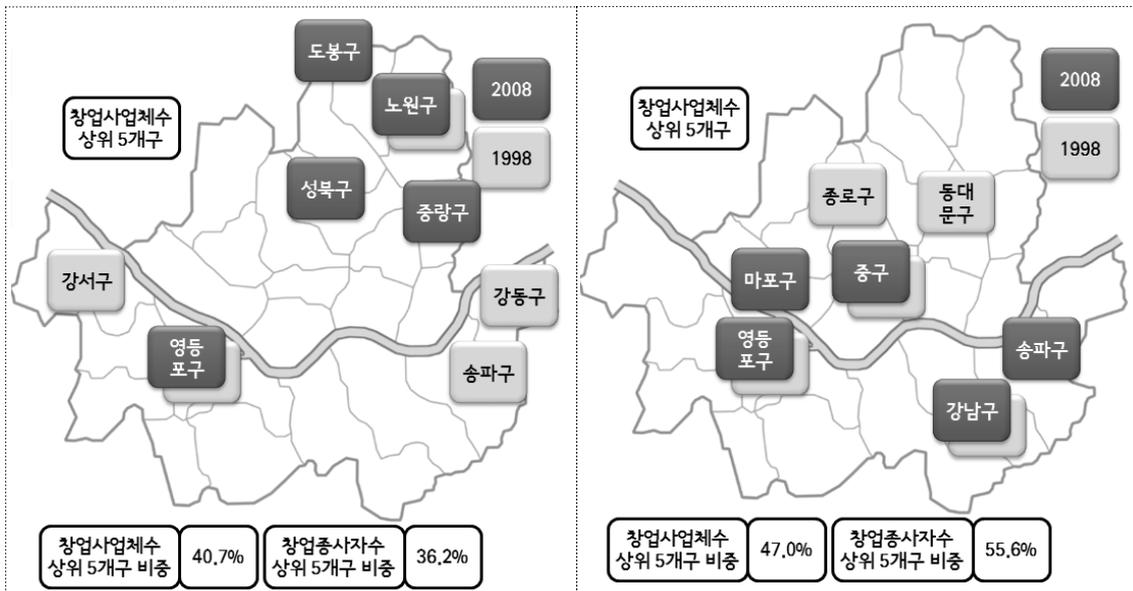
- 정체유형인 제조업 등은 성숙기 산업과 초기 단계 산업이 혼재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성숙기 산업은 산업집적지에서 창업활동이 보다 활발하나 전체적인 성장률은 감소 혹은 답보 추세
 - 제조업은 종로구, 중구, 중랑구에서의 창업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으며 동대문구, 광진구에서 성동구, 영등포구로 창업 중심지 이동
 - 건설업은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기존 창업 중심지였던 구로구, 서초구 대신 최근 마포구, 강동구에서의 창업이 증가
 - 운수업은 노원구, 영등포구에서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많고 최근 강동구, 강서구, 송파구 대신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가 창업 중심지로 부상
 - 금융 및 보험업은 중구, 영등포구, 강남구의 3대 도심을 중심으로 마포구, 송파구에서의 창업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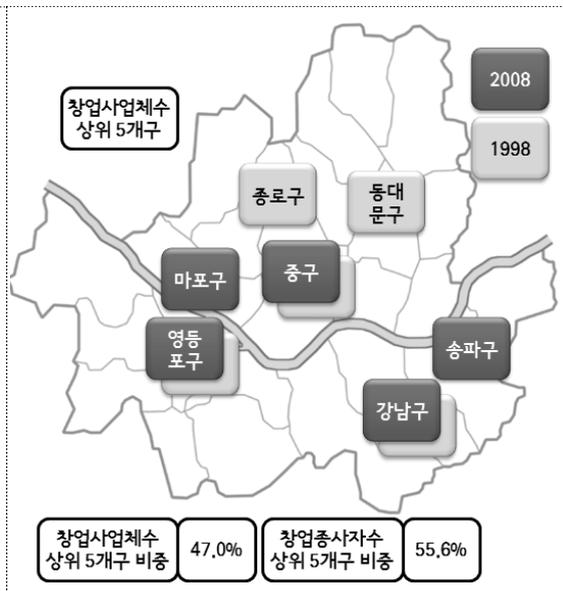
[그림 15] 제조업 창업의 공간적 패턴 변화 추이



[그림 16] 건설업 창업의 공간적 패턴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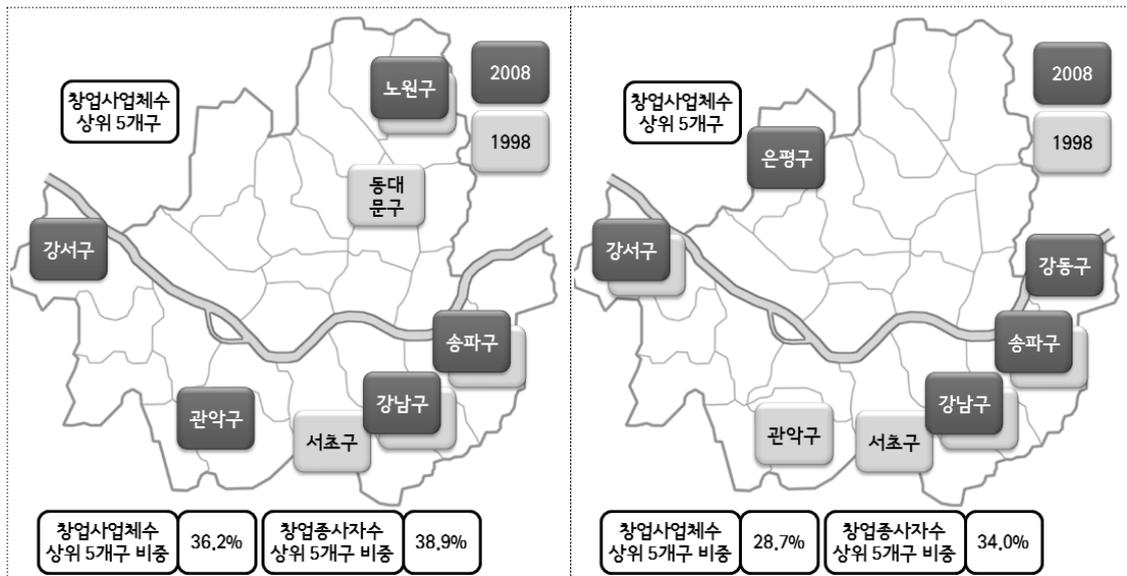


[그림 17] 운수업 창업의 공간적 패턴 변화 추이



[그림 18] 금융 및 보험업 창업의 공간적 패턴 변화 추이

-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은 분산된 창업 특성을 보이며 최근 비교적 빠르게 성장
 -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은 강남구, 송파구, 노원구에서의 창업이 많고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최근 강서구와 관악구에서의 창업 활동이 활발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주요 산업 중 창업사업체 수 상위 5개구 비중이 가장 낮은 분산형 패턴을 보임
 -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가 창업의 중심지 지위를 유지한 반면 관악구, 서초구 대신 은평구, 강동구가 새로운 창업 중심지로 부상



[그림 1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창업의 공간적 패턴 변화 추이

[그림 2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창업의 공간적 패턴 변화 추이

Ⅲ. 서울시 창업 정책에의 시사점

창업 사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 추진 필요

- 서울시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창업뿐 아니라 창업 이후의 성장도 지원하는 정책 방향 모색
 - 창업과 성장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과 기업지원정책의 연계가 바람직
 - 최근 서울시의 창업정책 포트폴리오에는 여성, 청년,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창업에서 애로가 많은 집단을 지원하는 창업 정책 증가
 - 해당 정책을 보다 전통적인 산업 정책의 측면에서 사업체와 산업을 대상으로 자금,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성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업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단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
- 기존 사업체가 고용성장을 견인하는 현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사업체의 성장과 혁신역량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고려
 - 창업정책뿐 아니라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장에서 사업체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환경 조성이 필요
- 주요 정책방향

산업유형	정책방향
성장유형	- 향후 시장변화와 산업구조 선진화 대비 - 산업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미래 지원수요 파악
순환유형	- 기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및 혁신정책과의 결합 - 지역 중심의 창업 전략 수립
감소유형	- 인력 재분배 차원에서 업종전환 관리 - 기존 사업체의 혁신 및 성장 제고
정체유형	- 제조업 등은 기존 역량에 기반한 산업 전반의 고도화 추진 - 개인서비스업 등은 적극적인 창업정책을 통한 성장유형 전환 도모 - 금융 및 보험업은 규제완화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환경 조성

창업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

- 성장유형 산업군은 가능한 현재의 성장추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해당 유형인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에는 향후 시장변화와 산업구조 선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산업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미래 지원수요 파악에 집중
- 순환유형 산업군은 창업-유입과 폐업-유출이 빠르게 일어나는 자영업 관련 산업군으로 순환이 빠른 대신 사업체의 성장이 어려움
 - 해당 유형인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리고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은 성장유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
 - 창업 이후의 성장, 즉 기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및 혁신정책과의 결합이 바람직
 - 지역과의 연계가 강한 산업특성상 지역 중심의 창업 전략 수립이 유효
- 감소유형 산업군은 창업과 기존 사업체 성장 모두에 있어 전반적인 대처를 고려
 - 해당 유형인 도매 및 소매업은 현재 점진적인 비중 축소 추세를 겪고 있음
 - 인력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업종전환을 관리하고 창업 못지않게 기존 사업체의 혁신 및 성장을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마지막으로 정채유형 산업군은 산업생애주기가 서로 다른 산업들이 속해 있는 유형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춘 유연한 창업 및 산업정책의 적용이 필요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이미 성숙한 산업으로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생태계를 형성
 - 창업 일반보다 기존 역량에 기반한 산업 전반의 고도화 정책을 통해 기술창업과 같은 특정 창업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유효
 - 개인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은 비교적 최근에 산업의 형태를 갖추고 성장하는 초기 단계의 산업
 - 복지정책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창업정책을 통해 성장유형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
 - 금융 및 보험업은 중규모 이상의 사업체가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특별한 구조
 -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되 규제완화, 제도적 인프라 마련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이 바람직

김목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248

hookman@sdi.re.kr